

# 히스패닉사회의 이해

첫째 마당  
문화적 다원주의

담당교수: 이재학

#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(침략과 발전)

- 초기 이베리아 반도의 거주인들- los iberos,  
los vascos
  - 그리스인- Iberia, 로마인- Hispania > España
1. 기원전 1100년- 켈트인(los celtas)들의  
침입=> los celtíberos
  2. 기원전 237년- 카르타고의 침입  
( 하밀카르, 한니발,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,  
제 2차 포에니 전쟁)
  3. 기원전 218년-기원전 38년- 로마의 침입

# Pax Romana

- ❖ 오현제 중 3명이 히스파니아 출신  
(트라야누스, 하드리아누스, 마르쿠스 아우렐리아누스)
- 4. 서기 409년- 반달족과 수에보족의 침입  
([V]andalucía)
- 5. 서기 429년- 서고트(*los visigodos*)인들의 침입  
(30만명의 서고트인과 700만명의 히스파니아인)



자료출처: 본인

# 서고트왕국 및 이슬람의 침입

- ❖ 6세기- 자신들의 종교인 아리우스교를 버리고  
히스파니아 원주민들과의 결혼 허용
- ❖ 7세기- 서고트어 상실, 라틴 문화에 완전히 동화

## 6. 서기 711년- 무어인들의 침입

Al-andaluz 왕국의 성립

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자료출처: 본인

2006 2 18





자료출처: 본인



# 가톨릭 왕국들의 성립 및 발전

- 718년- Asturias 왕국 성립: Pelayo(재위 718-737)를 왕으로 추대
- 720년- 프랑크 메로빙거 왕조의 궁재 카를 마르텔의 이슬람세력 북진 저지
- 910년- Asturias-León 왕국 성립
- 그 외 반도의 동부에서 Navarra, Pamplona, Aragón, Cataluña 왕국 등 성립
- 1037년- Fernando I, León으로부터 독립하여 Castilla 왕국 성립
- 1085년- Alfonso 6세의 Toledo 정복
- 1236년 Cordoba 정복
- 1238년 Valencia 재정복
- 1248년 Sevilla 정복

# 국토회복 전쟁(La Reconquista)

- 1089년- Rodrigo Ruy Diaz de Vivar (El Cid) Valencia 정복
- 11-13세기에 Granada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토를 회복
- 14세기- 페스트 발생, 경제침체, 정치적 분열 및 내란
- 14세기- Castilla, Aragón-Cataluña, Portugal, Granada 왕국으로 4분화됨
- 1462년- Aragón의 Fernando V(1474년 즉위)와 Castilla의 Isabel I 여왕 (1479년 즉위) 혼인에 합의=> 가톨릭 양왕(Los Reyes Católicos: 재위1479-1516)에 의한 스페인 통치
- 1492년- La Reconquista, 콜럼버스(Cristobal Colón) 신대륙 발견

# 스페인의 자기부정

- 1492년 가톨릭 양왕(los Reyes Católicos), 왕국 내 모든 유대인들에게 4개월 내에 스페인 떠날것을 명함
- 스페인 산업 및 금융기반 붕괴
- 1502년 왕국 내 무어인들 추방
- 하급귀족 Hidalgo의 몰락=> 신귀족층 탄생, 계급변동



# 스페인의 사회적 모순

- Castilla 사회의 구성원들은 항상 일정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=> 군사적 기능을 갖춘 다량의 귀족과 기사 양산=> 15세기말 Castilla 사회의 귀족비율 전체 인구대비 10% (다른 유럽국가 1% 내외) => 국토회복 후 새로운 사회문제 야기
- 스페인 종교재판소

# 스페인의 자기부정

1. 국토회복(la Reconquista)- 정체성확립/자기파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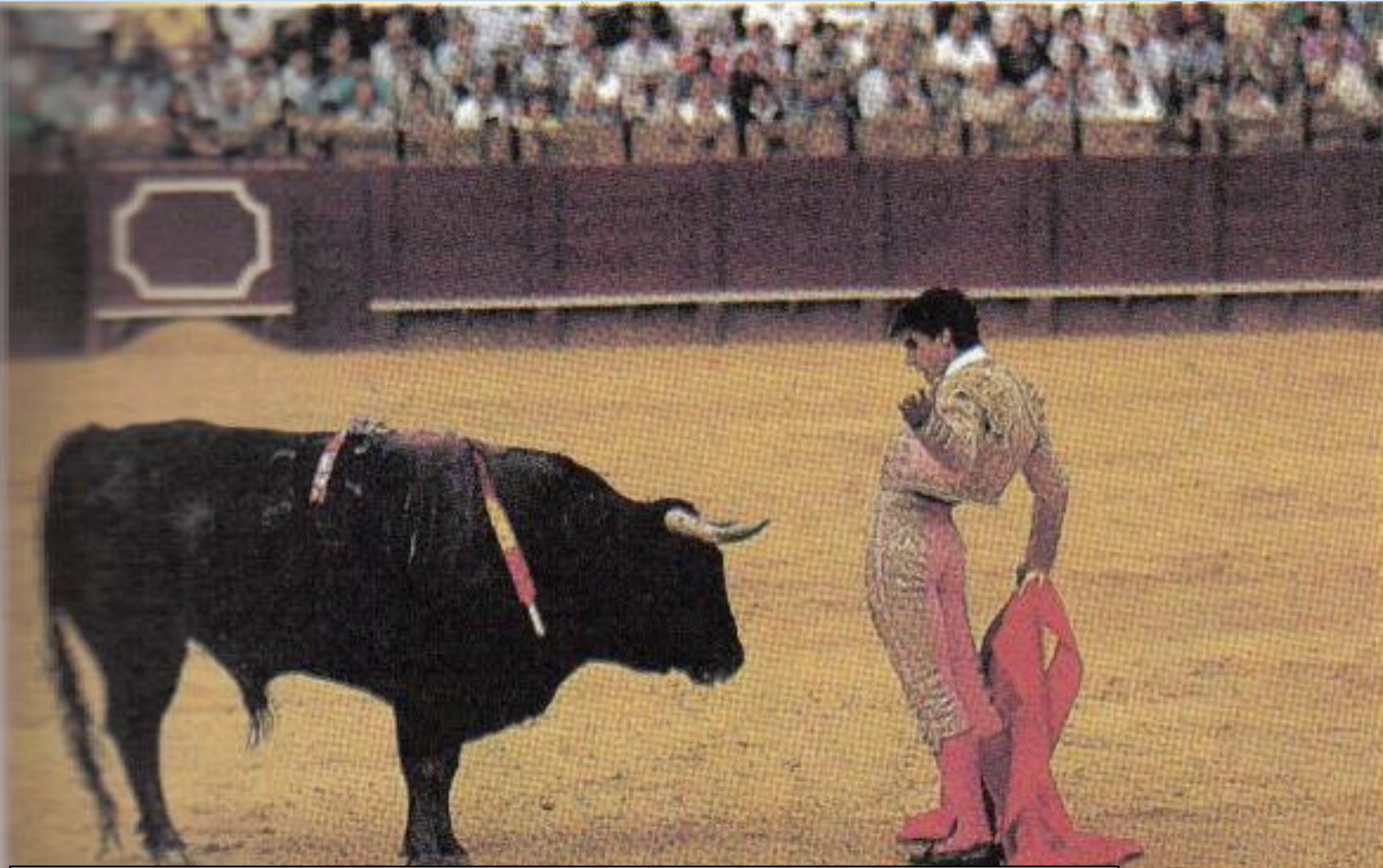
2. 아메리카 정복- 파괴/창조

=> 문화적 특이성: 타자와의 투쟁,  
포용, 혼합, 인지, 부정 (正反합의 연속)

# 히스패닉 세계의 이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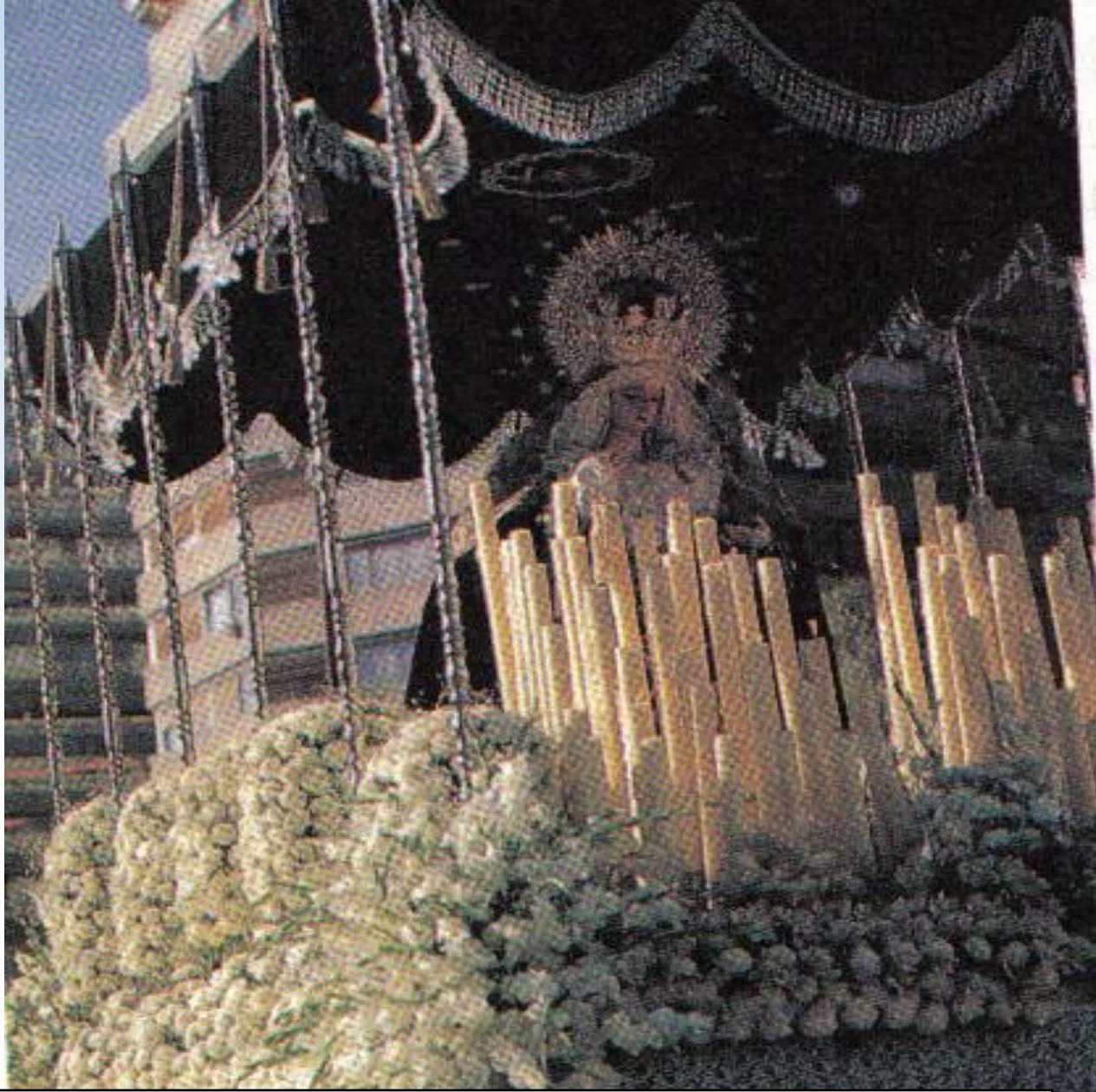
1. 태양(빛/그림자) =>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대변
2. 투우(삶/죽음) => 빛과 그림자의 미사 (빛과 그림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정체성의 문제)  
[picador + banderillero + matador],  
la hora de la verdad 'the moment of truth'
3. 성모 마리아(聖/性) => 관능적이고 신비스러운  
세비야의 부활절 행사(guapa)  
성스러움에 대한 갈망과 신앙에 의해 억압된 관능의 표현

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# 히스패닉 세계의 이중성

4. 엘체의 귀부인 => 처녀 + 요부(순결/불순)

5. 스페인인의 얼굴 => “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”

6. 가톨릭교회(금욕/세속) => 스페인 형성의 이데올로기  
개인주의 + 금욕주의 + 세속성(정치에의 개입):  
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끊임없는 정치에의  
개입

7. 플라멩고(슬픔/환희) => cante jondo

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



자료출처: 본인



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본인

# 다원주의적 특성

8. 봉건귀족, 영주, caudillo의 권한 강화와 지역주의적 특성=> 스페인,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한계  
(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허약한 민주주의의 기원이 됨)
9. 라틴아메리카 발견과 정복(현실/환상):  
로마제국 이래의 최대의 제국 형성
10. 로마 + 게르만문화(서고트왕국) + 기독교 문화 + 이슬람 문화 + 유대문화 + 인디오 문화(아스테카, 마야, 잉카, 칩차 등)